

혈액 한방울로 암부터 기형아까지... 유전자 해독

코스닥 상장 기업탐방

랩지노믹스

NGS 기반 '캔서스캔' 경쟁력 ↑
산전 기형아 검사 '맘가드' 확대
해외 ICL사업으로 성장동력 확보



경기도 판교 바이오센터의 랩지노믹스 검사센터.



랩지노믹스 연구센터.

암 환자별 표적항암제가 속속 개발되는 가운데 적절한 표적항암제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랩지노믹스의 유전자 진단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 현지 제약사도 관심을 보일 만큼 유전자 진단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목표는 흑자전환이다.

지난 19일 찾은 경기도 판교 바이오센터의 랩지노믹스 검사센터. 두 층으로 나뉜 검사센터는 직원이 많지 않아 다소 적막한 분위기가 났었다.

혈액 등 건강지표 정보가 담긴 검체는 83m 길이의 원형 트랙을 돌아 나온다.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긴 자동화 검사 시스템이다. 넓은 연구실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연구원이 최종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체의 모든 정보들이 속속들이 화면에 뜬다.

◆혈액에 담긴 정보

랩지노믹스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 기술 기반의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다. NGS란 유전자 해독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염기서열

분석(Sequencing·시퀀싱) 방식이다. 과거 DNA 합성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염기서열을 읽어내던 1세대 유전자 시퀀싱 방식과 달리, NGS는 DNA를 수많은 조각으로 나눠 동시에 해독해 원하는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랩지노믹스의 대표 기술이자 성장동력은 NG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캔서스캔(CancerSCAN)이다. 이는 암 조직 샘플을 NGS 기술로 분석해 유전자의 체세포 변이 목록 등의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암 진단 패널이다. 특히 랩지노믹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분석 BI(바이오인포매틱스, Bio Informatics) 플랫폼을 기반으로 375개 이상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7000회 이상 성능 평가를 거친 것은 캔서스캔만의 경쟁력이다.

병원은 캔서스캔을 통해 나온 유전자 정보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표적항암

제와 적절한 투약 용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항암제가 오남용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작년 1분기 2곳에 불과했던 거래처는 현재 가천대길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등 9곳으로 늘어났다. 거래처별 검사 의뢰 건수도 월 30~40 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낙태죄가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산전 기형아 검사 서비스인 맘가드(MomGuard)도 회사의 주력 서비스로 떠올랐다. 이는 산모의 혈액 속에 포함된 태아의 DNA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국내 최초 NGS기반 NIPT(Non-invasive prenatal test·비침습적 검사)다.

산전 기형아 선별을 위한 기존 임신부 검사인 '양수천자·용모막검사'의 경우 임신 20주차부터 가능할 뿐더러 침습방식(생체에 대한 상해)을 사용하고

있어 유산위험이 높다. 반면 맘가드는 임신 10주차 이후 산모의 피를 뽑기만 하면 다운증후군 위험여부를 99%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판단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편리하다. 현재 아산병원, 제일병원 등 산부인과 전문병원 중심으로 맘가드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중국 현지법인 설립

올해 랩지노믹스가 기대하는 성장동력은 해외 ICL(Independent Clinical Lab·독립진단실험실) 사업이다. 이미 2016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조인트벤처(JV·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스페인, 중국 등에 맘가드와 양광가드를 론칭한 상태다.

IR 관계자는 "이미 국내 3000개 병원, 200개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랩지노믹스는 중국 현지 법인의 지분 25%를 확보한 상태다. 해당 지분의 50%는 NGS 기반의 분자진단 기술출자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도 크지 않다.

하지만 랩지노믹스의 주요 기술력인 분석 BI는 공개하지 않는다. IR 관계자는 "중국 현지법인이 분석 B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랩지노믹스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회사 주요 자산을 지키면서 기술 이용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NGS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21% 성장세를 기록해 2021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99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랩지노믹스 매출의 약 40%가 유전자 분석과 분자진단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회사 측은 올해 흑자전환을 기점으로 회사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주식시장 호조... 증권사 1분기 전망 '맑음'

지배주주 순익 어닝서프라이즈 전망

올해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사의 1분기 실적도 반전 성적표가 예상된다.

1분기 중 하루 평균 주식거래대금은 약 9조원대로 전년(14조원)보다 비교적 줄었지만 글로벌 증시 호황, 트레이딩 수익 등의 호조세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커버리지 증권사 지배주주 순익은 컨센서스 대비 18.5%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금융투자·키움증권)의 순이익을 6500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삼성증권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금융투자·키움증권·메리츠증권의 1분기 합산순이익이 전년보다 403.8%가 증가한 6611억원으로 전망했다.

실적 견인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증시 호조세다.

증권업종 지수는 올해 들어 17.13%까지 올랐다. 코스피지수가 10.25%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높은 편이다.

트레이딩 수익도 기대되고 있다. 국내외 지수 상승에 따라 ELS(추가연계증권) 조기상환, 발행증가 등에 따른 파생운용 손익이 늘었고 금리 하락으로 인해 채권평가이익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 등락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보통 주가가 오를 때 상환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사들인다.

IB부문 성장세도 견조하다. 기업 및 부동산 대출 투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향후 현대오토에버 IPO, 서울스퀘어 빌딩 매각, 웅진코웨이 인수금융 등 지난해 4분기에 연기된 대형 딜들이 이어지며 IB부문의 견조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움증권, 메리츠증권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경우 브로커리지(주식중개)와 이자이익이 견조한 가운데 자기자본투자(PI) 수익이 큰 폭으로 재선될 전망"이라며 "우리금융 지분을 4% 보유하고 있어 배당이익도 세전 175억원 일회성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고성장 예상되는 스마트팩토리 중소형 Top Picks 2選> (단위: 십억원, 배, %)

종목명	시가총액(십억원)	현재주가(원)	매출액(십억원, %)			영업이익(십억원, %)		
			2018	2019E	YoY	2018	2019E	YoY
에스엠코어	245.4	12,250	93.5	145.0	55.1%	0.2	7.9	3,850.0%
알에스오토메이션	122.4	13,450	98.7	114.3	15.8%	1.1	5.1	363.6%

자동화설비 투자 확대... 스마트팩토리 '호재'

株라쿨라의 종목

에스엠코어·알에스오토메이션

"올해 정부는 스마트팩토리 보급 사업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석환 수석 연구원은 21일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업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마트팩토리'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제어되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최 연구원은 "올해가 국내 중소형 스마트팩토리 업체에게 엄청난 기회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이 준비된 업체를 중심으로 수주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 연구원은 올해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산업의 대규모 자동화설비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 쿠팡이나 위메프 등 대형 유통·물류 클러스터 내 자동화설비 투자가 확대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국내 스마트팩

토리 산업의 중소형 업체 가운데 두 곳을 탐픽종목으로 선정했다.

첫 번째 업체는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에스엠코어'다.

지난 2017년 SK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매개로 지분을 취득하며 SK그룹에 편입됐으며 무인지게차(AGV), 컨베이어, 무인반송시스템(EMS) 등을 중심으로 공정자동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SK그룹사의 캡티브(Captive·계열사 등 내부시장) 수주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해외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평가다.

최 연구원이 두 번째로 주목한 업체는 '알에스오토메이션'이다. 로봇 모션제어 및 에너지제어 장치 전문업체로, 삼성전자와 로크웰(Rockwell)의 JV(Joint Venture)를 전신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017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로봇 모션제어 제품은 로봇, 산업용 컴퓨터 등 자동화가 적용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제어 사업부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 속에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손영지 기자

증권사 해외 순익 1351억원... 전년비 155% 급증

해외 진출·중개·IB 등 수익 다양화

지난해 증권사의 해외점포 실적이크게 개선됐다. 대형사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활발히 진출하면서 해외 영업규모가 커진데다 중개·투자금융(IB) 업무 등 수익원도 다양해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개 국내 증권회사가 13개국에 진

출해 62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현지법인과 사무소가 각각 47개, 15개다.

지역별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48개로 가장 많았다. 중국 14개, 홍콩 9개, 인도네시아 8개, 베트남 7개, 싱가포르 3개, 일본 3개 등이다. 아시아 지역 외에는 미국에 9곳이 나가 있으며, 영국과 브라질이 각각 4개, 1개다.

증권사별로는 14개 증권회사가 해외

에 진출했다. 이 중 13개는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며, 대신증권은 사무소만 설치한 상태다. 작년 시장조사 목적의 사무소(15개)를 제외한 47개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억2280만 달러(한화 약 1351억원)로 전년 대비 155.7% 급증했다. 자기자본규모 확충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됐고, IB사업 활성화로 수익도 늘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